



# LEGAL UPDATE

신사업팀

Feb. 2023

## 초거대 AI 모델 관련 법적 이슈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학습하여 만들어진 초거대 AI 모델 및 그 생성물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중심으로 -

2022. 11. 30. ChatGPT가 출시된 지 2달 남짓 지났을 뿐인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알파고 이후에 한단계 더 진화되어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요청하면 기계가 쓴 것이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글까지 생성해주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초거대 AI 모델과 그 생성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몇몇 분야에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ChatGPT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기술혁신이 있고 반면에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미국 집단 소송에서는 어떤 점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본 후, 향후 시사점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 1. 배경

2022. 11. OpenAI가 ChatGPT를 출시한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5일만에 100만명이 사용하는 기록을 세우고, Similarweb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 1. 하루당 평균 접속자 수는 1,3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검색 엔진을 대신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이메일이나 블로그 글과 같은 일상적인 글 뿐만 아니라 심화된 주제의 논문까지도 전문가 수준의 내용으로 작성해 줍니다. 특정 기능이나 목적을 알려주면 그에 맞는 소스코드까지 직접 작성해주므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번거로운 작업을 피하고 싶은 전문 프로그래머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ChatGPT를 사용하면서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생성해내는 글이나 소스코드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특히, ChatGPT로 작성되는 글이나 소스코드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로 자동 생성된다고 알려질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생성된 출력물에는 별도 출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원 창작물에 대한 표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논란이 현실화되어, 2022. 11. OpenAI의 인공지능 모델에 기반하여 출시된 서비스 Copilot에 대해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Copilot은 프로그래머를 대상으로 내놓은 인공지능 서비스로서 ChatGPT가 기능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사용자가 희망하는 소스 코드 요청 내용에 기반하여 소스코드를 자동으로 완성시켜 줍니다. 그런데 Copilot은 전세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장소로 알려진 GitHub의 소스코드 데이터를 학습한 결과로 출력물을 생성하면서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통상적으로 표시되는 사항이 생략된 채 결과물을 제시한다는 점이 논란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원 창작자는

OpenAI, GitHub, Microsof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시작된 위 소송은 Chat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의 출력물에 대하여 여러 업계가 제기하는 표절 논란을 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용자 입장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 2. 초거대 AI 모델의 기술 혁신과 논란의 요소

### 가. 대형 언어 모델의 진화로 탄생한 초거대 AI 모델

OpenAI가 출시한 ChatGPT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된 대형 언어 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진화시킨 결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입니다. OpenAI는 2018. 최초 버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이후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고 부르는 대형 언어 모델을 계속 개량해왔고, 3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2022. 11. 30. GPT-3.5 모델을 기반으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ChatGPT를 공개하였습니다. 인간의 뇌를 본 딴 것처럼 신경세포 시냅스에 해당하는 '매개변수'가 GPT-1에서는 약 1억7,000개였던 것이 GPT-3에서는 약 1,000배에 이르는 1,750억개로 늘어나면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ChatGPT는 그 보다 조금 더 개량된 GPT-3.5 모델에 기반하여 출시하면서 그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LINK).

ChatGPT는 사용자가 질의하거나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게 설득력 있는 출력물을 생성해 냅니다. 나아가 질의 또는 요청한 사항의 문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대답이 마치 사람이 내놓은 것처럼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영문에 기반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 자연스러움의 정도가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인공 지능이 만들어 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종전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로봇이 인간을 어설픔게 닮을수록 오히려 불쾌함이 증가한다는 한계, 이른바 '불쾌한 골짜기'를 극복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OpenAI는 ChatGPT의 기반이 된 지금의 GPT 모델로 개량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570GB의 문자 데이터, 3조개의 단어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OpenAI의 GPT 모델이 학습한 문자 데이터는 누구나 인터넷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책, 웹사이트 게시물, 위키피디아, 뉴스기사에서 확보한 공개 자료들입니다(LINK).

OpenAI는 GPT 모델에 기반하여 프로그래밍 언어, 즉 소스 코드에 특화된 Codex 모델도 개발하였는데, 그 Codex 모델의 학습을 위하여 GitHub의 공개 소스 코드 저장소(Repository)로부터 확보한 방대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였습니다. GitHub 저장소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소스 코드가 공유되는 대표적인 곳이므로, Copilot의 Codex 모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세계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거의 모두 학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나. 초거대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에 대한 논란

ChatGPT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ChatGPT가 생성한 출력물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 출력물의 이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별도로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력물 그 자체로 사람이 작성한 것인지 인공지능을 이용한 결과물인지 분간하기 어려웠고, 각계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로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계나 학계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는 과제 대필 행위를 우려하여 ChatGPT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였고,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Chat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에 기반한 인공지능은 연구 논문의 저자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인공지능을 사용할 경우 논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다른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생성된 내용을 논문 작업에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표절과 다를 바 없는 '과학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ChatGPT가 생성한 출력물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출처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 출력물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ChatGPT가 와튼 스쿨 MBA 시험에 합격하였다거나 미국 의사 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 'USMLE')을 통과하였다고 알려진 바 있으나, 그럴싸한 답변으로 맞는 답인 것처럼 보일 뿐 그 실체는 부정확하다고 확인된 결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네이버 지식인 격인 Stack Overflow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정확한 답변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 사용자들 사이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ChatGPT의 출력물을 답변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LINK). ChatGPT를 개발한 OpenAI의 최고기술책임자(CTO)도 미국 시사주간지와 인터뷰에서 경우에 따라 사실을 지어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솔직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LINK).

#### 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의 초거대 AI에 대한 논란

OpenAI의 GPT 모델로 생성된 출력물에 근거로 삼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 표시가 없다는 점은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ChatGPT가 출시되기 전, OpenAI가 2021. GPT 모델에 기반하여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Copilot'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OpenAI가 Copilot 서비스를 위하여 GitHub 공개 저장소의 소스코드로 GPT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밝히면서, 해당 공개 저장소를 각자의 창작물들에 대한 대표적인 공유의 장으로 삼았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타인이 공개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 경우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자신의 소프트웨어 배포 시에 자신이 이용한 타인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표시를 유지하거나,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GPL 라이선스를 포함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 자신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들 간에 라이선스 양립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하려는 원 소스 코드의 출처와 그에 따른 라이선스가 명시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확인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의무사항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GPT 모델의 출력물이 GitHub 공개 저장소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학습한 결과 도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를 우회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종전의 방식대로 GitHub 공개 저장소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면 해당 라이선스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였을 것이나, GPT 모델의 출력물은 그 출력물을 만드는데 사용한 소스코드의 출처, 저작권, 라이선스 표시 없이 새로운 창작물로 제시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이 주된 근거입니다.

이에 대해, OpenAI, GitHub측은 일반적으로 머신 러닝 업계 공개된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이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초거대 AI 모델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OpenAI는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개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 행위는 공정 이용 범리에 부합하고, 창의적 표현을 장려하고 보편적인 경제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한 바도 있습니다([LINK1](#)).

Copilot 출시 이후 갑론을박은 지속되었고, 결국 2022. 11. GitHub 공개 저장소의 소스 코드 원 작성자들은 GitHub, OpenAI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3. 초거대 AI 모델에 대하여 제기된 미국 집단 소송의 개요

미국 집단 소송은 프로그래머이자 미국 변호사인 매튜 버트릭(Matthew Butterick)이 주도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작성자들을 모아 시작되었습니다. 상대 회사에는 Copilot 서비스를 출시한 GitHub 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데 참여한 OpenAI 및 그 계열사, GitHub의 모회사인 Microsoft 도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집단 소송은 2022. 11.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LINK](#)).

미국 집단 소송의 주된 청구 원인은 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위반, ②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 위반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불법적 간섭,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원산지 허위 표기에 따른 상표법 위반, 부당 이득 수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습니다([LINK](#)).

소장에 기재된 원고 주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행위는 분명합니다. Copilot 동작의 기반이 된 초거대 AI 모델은 GitHub 공개 저장소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사용하여 학습이 이뤄졌고,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기반하여 출력물을 생성함에도 불구하고, 출력물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시 의무사항 준수에 따라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장에서는 해당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아래와 같이 각 청구 원인에 따른 위법을 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①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위반

DMCA 제1201조는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 및 우회할 목적으로 설계되거나 제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제1202조는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권 관리 정보(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CMI')를 고의로 제거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17 U.S. Code § 1201 - Circumvention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s

(a) Violations Regarding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1) (A) No person shall circumvent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is title. (...)

- (2) No person shall manufacture, import, offer to the public, provide, or otherwise traffic in any technology, product, service, device, component, or part thereof, that—  
 (A) is primarily designed or produced for the purpose of circumventing a technological measure that effectively controls access to a work protected under this title;  
 17 U.S. Code § 1202 - Integrity of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  
 (b) Removal or Alteration of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No person shall, without the authority of the copyright owner or the law—  
 (1) intentionally remove or alter any copyright management information, (...)

원고는 Copilot의 초거대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로 삼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출처, 저작권 표시 및 라이선스 조건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는 '저작권 관리 정보(CMI)'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초거대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에 그 저작권 관리 정보가 삭제된 채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행위는 DMCA 제1201조 및 제120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 ②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 위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사용 시 특정 라이선스 조건을 따라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최소한 출처(attribution), 저작권 표시(copyright notice), 라이선스 고지의 의무사항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MIT 라이선스에 따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위 최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아래 MIT 라이선스 조건 참조). 원고는 Copilot의 초거대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주장합니다.

### The MIT License

Copyright <YEAR> <COPYRIGHT HOLDER>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is software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files (the "Software"), to deal in the Software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ify, merge, publish, distribute, sublicense, and/or sell copies of the Software, and to permit persons to whom the Software is furnished to do so,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DEALINGS IN THE SOFTWARE.

## 4. 시사점

OpenAI의 초거대 AI 모델을 기반으로 Copilot 뿐만 아니라 ChatGPT까지 출시되면서 기계 학습에 따른 인공지능의 효용성이 한 단계 크게 성장하였다고 보입니다. 알파고 이후로 AI 업계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불러일으키며 대화형 인공지능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특정 업계의 전문가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초거대 AI 모델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기존의 글 쓰기는 쉬워지고 편해졌습니다.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서 정보를 탐색하고, 그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녹여내서 하나의 글에 담아야 하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대화형 인공지능에게 요청하면 짧은 시간 내에 원하는 글을 얻어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공지능이 출력한 그대로 써도 될 만큼 문맥, 문장 구조와 논리를 갖추어서 특별히 수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초거대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기반하여 그러한 출력물을 생성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초거대 AI 모델로 제시된 인공지능은 스스로 창작한 형태로 출력물을 생성할 뿐, 기존에 사람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기반하여 글을 작성하면서 정보의 출처를 기재하던 방식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초거대 AI 모델에 따른 새로운 방식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었으나, 학계, 교육계 등에서 제기되는 표절 우려 등을 포함한 여러 논란을 계속하여 불리일수록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기존에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규범으로 자리잡은 방식과 다르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고, 그 충돌이 심화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벌어진 사태처럼 소송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의 방어 논리인 '공정 이용' 주장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가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명확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바 없고, 나아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 연구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에 대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학습시킨 인공지능 모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초거대 AI 모델이 거듭 개량된 결과 이제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을 넘어 유료 서비스로 출시되어 상업적 수단이 되고, 해당 서비스로 인하여 기존의 창작물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면 인공지능 학습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초거대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을 그대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확신할 수 없고, 개별 사안마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초거대 AI 모델의 출력물은 인터넷에서 공개된 자료를 학습한 결과물이므로, 그 출력물과 원 자료 간의 유사한 정도에 따라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itHub의 설명자료에서도, 극히 일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공지능의 출력물이 기존의 소스 코드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사용자가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 결과물의 기존 자료와의 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업적인 사용을 희망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미국 집단 소송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만의 특유한 규범으로 인해 초거대 AI를 둘러싼 논란이 다른 사례에 비하여 조금 더 일찍 구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분쟁이 시작되었으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나오는 쟁점과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각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안에서 법적 이슈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초거대 AI가 생성하는 출력물이 사용되면서 이를 접하게

나아가 더 광범위한 분야에서 초거대 AI가 생성하는 출력물이 사용되면서 이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거대 AI 모델이 생성한 출력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그에 맞는 규범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향후 논란의 중심에 계속 서 있게 될 것이라 보입니다. 화우 신사업그룹은 미국 집단 소송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도 각 분야에서 초거대 AI 모델이 사용되는 방식을 관찰하면서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뉴스레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화우 신사업그룹은 방송정보통신, 개인정보/정보보안, 신기술, 환경규제, ESG 등 새로운 산업과 분야에 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도움을 적시에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mailto:kwlee@yoonyang.com)

###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mailto:klee@yoonyang.com)

### 권은구

T. (+82) 2 6182 8538

변리사

E. [egkwon@yoonyang.com](mailto:egkwon@yoonyang.com)